

# 광복 50년의 출판문화

권영민

서울대 교수·국문학

정치 혐오의 정치론을 내세운 바 있는 영국의 허버트 리드는 “문화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대서는 안된다. 그것은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의 자율성을 말할 때마다 리드가 한 이 한마디의 충고가 생각난다.

문화라는 것은 사실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얽매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규정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인간의 삶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살아있는 사회적 현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인간 생활양식의 용체라고도 한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생을 영위하며, 우주만물을 대하는 일체의 행위가 문화를 형성한다고 한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며, 문화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연유되는 것이다.

지난 일년 동안 광복 50년을 기념하는 갖가지 문화 행사를 치렀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 발전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 여기저기서 이뤄졌고, 21세기를 향한 문화 예술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차분하게 광복 5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인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요란스런 걸치레의 문화행사가 많았지만,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기는 어려웠다.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되지 못한다. 문화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사람들의 요구와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와 요구와 행동이 모두 다르고,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것처럼 문화의 양상도 달라지며 그 방향도 일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 체계 전체를 문화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면, 문화는 일종의 의미의 영역이면서도 상징적인 형식의 영역이 된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미가 규정되며, 문화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성립된다.

문화는 개인적인 욕구에서부터 사회적 질서에 대한 신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의 가치와 규범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오고 있다. 문화는 결국 모든 사회 현상과 불가분의 복합체이며,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판문화는 사회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광복 50년 동안 우리의 출판 문화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여 왔다. 분열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각된 문화의 분열도 체험했고, 이념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빚어진 문화의 갈등도 경험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출판문화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이 문화적 통합을 기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직결된다.

우리 사회가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선택하고 다원화된 고도 산업 사회의 발전에 조화롭게 추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발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이 필요하다. 물량적인 사회 발전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된 사회로의 진입을 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의 풍요로움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초점 2 개정 저작권법 충격, 출판계 초비상  
외국인 저작권 소급보호... 학술출판에 타격 커

송년특집 4 출판계 인사들이 뽑은 95년 출판토픽

8 95년 불황의 실체를 점검한다

(기획/제작/광고/유통)

12 숫자로 읽는 95년 출판계 이모저모

14 독자 사랑받은 올해 화제의 저작자들

(강준만/조정래/전여옥/윤대녕/이성호/이면우/홍세화)

18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책들'

자료 13 문화체육부 추천도서 선정목록

열골 17 창업 50주년 맞은 을유문화사 정진숙 사장

쟁점서평 28 노동은 교수의 《한국 근대음악사》

한국음악사의 새 지평 연 탐구성과 - 송방송

'해석'과 '사실' 구분 모호한 음악사 - 이장직

서평 30 이도학 《백제 고대국가 연구》 - 양기석

박종성 《왕조의 정치변동》 - 배병삼

31 황준연 《울곡철학의 이해》 - 김 현

윤지관 《근대사회의 교양과 비평》 - 정정호

32 임흥빈 《기술문명과 철학》 - 윤평중

베스트 외 《탈현대의 사회이론》 - 김중엽

33 웅 《사람과 상징》 - 박창호

34 신간안내 / 44 새로 나온 책 / 48 재미있는 책 이야기

표지사진 / 김지옥 (관련기사 18면)

## 알림

본지 12월20일자 정기 휴간

《출판저널》은 연말연시의 정례휴가에 따라 예년과 같이 12월20일자를 휴간하고, 다음 호(183호)는 1995년 1월5일자 신년호로 발행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